

# 융합 국악 공연 '굿GOOD보러가자'

익산예술의전당서 내달 5일 무료 진행... 이난초 명창 · 이리농악보존회 · 밴드 카디 등 공연

익산시는 오는 9월 5일 오후 7시 30분에 익산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굿GOOD보러가자' 공연이 펼쳐진다고 29일 밝혔다.  
'굿GOOD보러가자'는 2004년 첫선을 보인 후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융합(퓨전) 국악 공연이다.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와 대중에게 익숙한 국악인이 함께 출연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이며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공연으로 자리 매김해 왔다.  
올해는 5월 전라남도 무인을 시작으로 6월 경기도 광주시, 7월 대전광역시에 이어 네 번째로 익산에서 개최됐다.  
이번 익산 공연은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이 주최하고 익산시와 국가유산진흥원(원장 최영창)이 공동으로 주관해 마련됐다. 국악인 오정혜의 사회로 대한민국 최고의 명인들과

지역 예술인들이 흥과 신명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보유자인 '이난초' 명창이 흥보가 중 노정기를 부르고 '이리농악보존회'의 길놀이, '여현수·김재현'의 용기놀이, 국가무형유산 남사당놀이 이수자인 '권원태' 명인의 줄타기 공연이 펼쳐진다.  
아울러 △밴드 '카디(KARDI)'의 퓨전 공연 △'국악 재즈 소사이어티'의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한 재즈 공연 △'연희공방 음마쟁쟁'의 전통 인형극 △ '국가유산진흥원 예술단'의 오복춤과 태평무까지 세대와 분야를 넘나드는 예인들이 다채로운 가(歌)·무(舞)·악(樂)을 선보인다.  
이난초 명창은 동편제를 대표하는 여류명창으로 짙은 남도색과 거침없는 고음을 통해 관

객을 사로잡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0년 이난초 명창의 국가무형유산 흥보가 보유자 인정 당시 24년 넘게 국가무형유산 예능 보유자가 없었던 전북 지역에 공백을 메워 화제가 되기도 했다.  
카디(KARDI)는 JTBC 프로그램 '슈퍼밴드'에 출연한 바 있으며 보컬 김예지, 거문고 박나을, 기타 황린, 베이스 황인규 등 탄탄한 멤버로 이뤄진 밴드다. 대표곡인 '700RPM'과 'Watch Out'을 라이브로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초등학교 이상 관람이 가능하고 전석 무료로 진행된다. 티켓 예매 등 문의사항은 익산예술의전당 누리집(arts.iksan.go.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63-859-3254)로 안내받을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 '미꾸리아, 남원을 부탁해' 발간

남원 추어탕 역사 · 문화적 의미 생생하게 담아낸 기록화 조사집

남원시가 2017년부터 진행하는 남원 기록화(아카이빙) 사업이 또 한 번의 결실을 맺으며, 여덟 번째 이야기인 '미꾸리아, 남원을 부탁해'를 발간했다.  
이번 아카이빙 작업은 남원의 문화, 특히 남원의 삶과 깊은 연관이 있는 추어탕에 초점을 맞췄다. 미꾸리와 추어를 주인공으로 삼아 남원 추어탕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생생하게 담아낸 이 기록화 조사집은 총 80쪽 분량으로, 다양한 문헌과 통계, 고증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추어탕과 함께 살아온 주민들의 소중한 기억을 담았다.  
특히, 이 책은 미꾸리와 미꾸리지의 차이점, 추탕과 추어탕의 구분, 그리고 남원 추어탕이 명성을 얻게 된 배경 등을 추어탕과 함께 살아온 이들의 기억을 토대로 다채롭게 그려냈다.  
남원 기록화 조사집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남원의 여러 문화시설에



배포될 예정이며, 근현대기록관 남원다움관의 전시 콘텐츠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무주반딧불축제 개막식서 전북 대표 공연 만난다

전북문화관광재단, 31일 '거리극축제 노상놀이'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오는 31일 개최되는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 개막식에 전북대표공연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연예술과 함께하는 전북관광활성화' 사업의 일환이다.  
이에 따르면 올해 지원 공연은 '전북특별자치도 거리극축제 노상놀이' 사업에 선정된 사)국악예술원 소리피의 '백제 무왕 남시오' 행차 퍼레이드다.  
'백제 무왕 남시오'는 취타대와 마당놀이가 어우러진 퍼포먼스형 퍼레이드로, 무주반딧불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개막식 순서 중 반디



국악예술원 소리피 공연 사진  
입장식에 참여하게 된다.

반디입장식은 8월 31일 오후 6시 30분 무주군청에서 시작해 등나무운동장(개막식장)까지다. 소리피 공연을 선두로 무주군 6개 읍·면 주민들과 무주가족센터, 농악팀 등 300여 명과 함께 퍼레이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지역 축제에서 전북 대표 공연을 통해 도민과 방문객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지역 축제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연예술과 함께하는 전북관광활성화 사업은 10월 열리는 진안홍삼축제와 순창장류축제에도 전북 대표 공연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예술화관운영팀(063-280-7494)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한국예총장수지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예총장수지회(회장 고강영)는 지난 28일 11시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2층 회의실에서 2024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각종 현안에 대해 협의의 결정하는 순서를 가졌다.  
이번 총회는 장수예총 산하 4개 지부(사진, 국악, 문인, 음악) 대의원들로 소집 되었으며 △장수예총 2024년도 사업 보고, △조직 및 운영규정 개정, △오지마을 문화투어 행사 보고와 전라예총에 관해 협조를 부탁했다.  
정기총회 이후에는 전북예술인복지증진센터에서 '찾아가는 안내 서비스(일사천리)'가 진행됐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재단에 따르면 입주공간 지원을 통해 입주기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지역 관광산업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9월 4~11일까지며,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재단 누리집(www.jbct.or.kr)에서 지정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jbctorubiz@jbct.or.kr)로 제출하면 된다.  
모집 대상은 창업한 지 7년 이하의 중소기업

으로, 독립공간과 1인 공유오피스에 입주할 기업을 선발한다. 독립공간에는 4개 사, 1인 공유 오피스에는 6개 사가 입주할 수 있다.  
모집 절차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로 이뤄진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10월 1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10월 8일까지 입주를 완료하면 된다.  
입주 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입주기업은 최대 2회까지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063-230-4212)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시각예술 분야 관련 지속적 업무교류 활성화를 위해 대구문화예술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라기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사진 가운데에서 오른쪽)과 박순태 문화예술본부장(사진 가운데에서 왼쪽))

# 전주문화재단-대구문화예술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전주문화재단(대표 최라기)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시각예술 분야 관련 지속적 업무교류 활성화를 위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원장 김정길)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양 기관 예술인의 교류 및 협력 △지역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한 콘텐츠 상호 교류 △향후 문화예술에 기반한 사업의 공동 기획·추진 △기타 필요하다고 협의한 사항에

대한 상호 협력에 대한 사항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주문화재단은 지역 예술인 및 팔복 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한 작가들이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라기 대표이사는 "문화재단 연계 협력을 통해 지역 어디서나 고르게 문화를 누리고, 작가들은 창조적 예술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창작공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 전주매일 캠페인

### 선화당

### 관풍각

### 내아

###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